한 형 조

무문관 탐방

43

법안의 발 ②

법안종은 비교적 후기에 성립한 종파이다. 육조 혜능의 뛰어난 제자 가운데 하나인 청원(淸原)을 비조로 하고 있다. 청원은 주지하다시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처음 읊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일상의 눈에는 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나 분발하여 길을 나서는 순간, 세계는 지금까지 익숙하던 세계와는 다른 빛깔과 형상을 띤다. 일상적 사고습관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련이 깊어지면 미진은 점점 강진으로 변해가다가 어느날 땅이 꺼지는 충격이 온다. 견성이나 해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경험을 선사들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전자 밑바닥이 뚫렸다"거나 달마가 양무제에게 질타한 것처럼 "허공마저 확 뚫렸다(廓然無聖)." 그런 실존의 전화(轉化) 이후의 세계는 그러나 예전처럼 평온하기이를데 없다. 광풍이 지나간 숲, 태풍이 지나간 바다의 고요같은 것. 선사들은 깨달음 이후의 풍경을 지극히 일상적이고 담담한 것으로 그린다. 위산이 꿈을 꾸었다고 하자 제자 앙산과 향엄은 세수대야를 받치고 수건을 들고 들어온다. 별무기특. 싱겁기 그지 없는 세계가 선이라고 한결같이들 말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림 · 이준석

아래 석두(石頭)는 승조 선사다.

이런 사승과 준비를 거쳐 법안문익(885~958)이 등장한다. 처음 율종을 배웠다. 불교 외에 유교 경전에 대한 교양도 있고 문장이 뛰어났다. 곧 잡학의 태도를 버리고 남으로 복주의 장경사에 들었으나 배움이 없어 동료 2~3인과 함께 대유령을 넘는데 눈 때문에 지장원이라는 절에서 쉬었다. 그곳 주지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 "행각을 나섰습니다." "그래요, 선이란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그것이 꼭 맞는 대답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조론〉에 논의가 미쳤다. "천지가 나와 뿌리를 같이한다"는 대목에서 지장이 "산하대지가 나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라고 하자 "같지요" 하자 주지가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며, "이렇게 말입니까?" 했다.

그러던 중 눈이 그쳤다. 법안 일행은 작별을 고하고 문밖을 나섰다. 주지는 배웅나와 정원의 돌을 가리키며, "당신은 삼계유심(三界唯心)이라느니, 만법유식(萬法唯識)이라느니 하는데, 이 돌은 당신 마음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물론 내 마음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주지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물건을 안에 담고 행각을 다니십니까?" 법안은 이 말에

"佛法은 항상 여기 있는거요"

"법계는 형체가 없는데 무슨 자아와 타자가…"

의 〈조론〉을 좋아했다. 자아와 타자의 일치, 현상과 본질의 무차별을 축으로 노장과 불교를 접합한 이 책이 선적 비전을 말하고 있음을 느꼈다. 〈조론〉의 "성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모든 것이 나와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라는 대목에서 석두는 이렇게 외쳤다. "성인은 자아에 대한 고착을 버렸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 아닌 것이 없었던 것이다. 법계는 형체가 없다. 거기서 무슨 자아와 타자가 드러나겠는가."

개인적 경험을 중시하는 타 종파와는 달리 법안종은 우주의 무한한 지평을 통찰하거나 경전과의 교감을 강조하는 듯하다. 이 사변적 성향은 나중 선과 정토의 접합을 모색하는 영명연수(永明延壽904~975)에게까지 뻗어있다.

석두를 이어 덕산과 설봉이 등장한다. 기억할 것이다. 어느날 종도 울리지 않았는데 밥그릇을 들고 방을 나서던 덕산을. 그걸 보던 설봉이 "이 늙은이, 종도 울리지 않고 북도 치지 않았는데 어딜 가시오"라고 묻자 방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을. 설봉을 이은 현사는 "어서 저 물소리 속으로 들어가 보라"로 유명한 사람이다. 어느날 법상에 올라 설법을 시작하려는데 창밖에서 새의 날개짓 소리가 들렸다. "실상에 대한 심원한 설법이요, 진리에 대한 선명한 해명이다"라면서 현사는 법상을 내려 걸음을 멈추었다. 의문을 풀기 위해 더 지내보기로 했다. 매일 새로운 견해와 답변을 꺼내보았지만, 주지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불법(佛法)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한달이 지나 법안은 이렇게 손을 들었다. "이제 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지는 "불법은 항상 여기 있는거요." 이 말을 듣고 법안의 눈이 열렸다.

법안은 나중에 이같은 절대적 현재의 법문을 자주 설파했다. "실재는 바로 너희 앞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름과 형상의 세계로 번역하고들 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본래대로 돌려 놓으려는가." 그 자신 박식하고 다양한 학문전통에 익숙해 있었지만, 아니 오히려 그러했기에 그는 순전한 학문이나 이론을 경계했다. 그의 설법의 묘미를 담고 있는 화두를 하나 소개한다.

한 승려가 물었다. "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 자체를 알고 싶습니다." "네가 묻지 않겠다는 그 손가락은 누구 거냐." 곁의 다른 승려가 물었다. "저는 달이 아니라 가리키는 손가락을 알고 싶습니다." "달이다." 승려가 항의했다. "손가락을 물은 것인데 어째서 달을 말하십니까." "네가 손가락을 묻지 않았더냐." 법안의 향취가 물씬 느껴지는 이야기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생활속에서 '법칙'을 찾자"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2

정견 ②

사원 정원을 자주 산책했던 아잔 차스님(Achann Chah)은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고통을 많이 겪었나?"고 물었다고 한다. 만약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하면 "집착을 버려!"라고 말하며 빙그레 웃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상의 사물들은 일상의 주변에 잠깐 머물며 우리에게 경의와 즐거움을 줄 뿐, 우리가 완전히 소유한 것은 아니다. 삶의 본질은 무소유이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단순한 회계사이다. 우리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물들의 가치를 계산하고 취하는게 전부인 회계사일 뿐이다.

명상은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일련의 법칙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현자(賢者)로 일어선다. 명상이 몸과 마음을 열고 깨달음을 얻는 한 방편이게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법칙'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특별하고 육중한 어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상 법칙이란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우리의 의식에도, 말에도, 먹는 것에도, 걷는 중에서도 '법칙'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의 삶 어떤 부분에서건 어김없이 '법칙'이 있으며, 이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 행동과 생각 등을 일으키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가장 힘겹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들 중에 고(苦)가 있다. 고를 법칙에 투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일시적이라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

삶의 본질은 무소유
고통의 속성 '일시적'
탐욕 · 집착 개선해야

그러나 웬만한 연륜과 공부가 쌓인 사람들조차 삶과 고통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고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고통의 속성인 일시성을 모를 때, 결국 우리는 고통의 인과(因果)를 계속 떠올리는 망상(생각)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삶이 고의 법칙을 떨칠 수 없는 이치가 여기에 있다.

미국 뉴욕시에서 티벳 유랑을 꿈꾸는 한 중년 여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날 그녀는 여행사를 방문해 티벳여행 상품을 물었다. 여행사 직원은 티벳보다는 마이애미 해변을 권했지만 그녀는 "티벳에서 구루(Gruru · 스승)를 만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요"라며 티벳행을 고집했다. 히말라야 산록의 왕국인 시킴(Sikkim), 티벳 고원 라닥크 등을 유랑하던 그녀는 많은 순례자들을 만났다. 순례자들은 "구루를 만나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매번 "구루는 단지 세마디만을 할 것"이라며 빙그레 웃었다. 드디어 텁수룩한 수염을 기른 구루를 만났다. 그녀는 공손히 절하고 가르침을 청했다. 구루는 "집으로 돌아가시오"라고 대답할 뿐 미동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에게는 버릴 것은 있지만 떠날 곳은 없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생생한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이란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운전을 할 때, 걷고 말할 때에도 우리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명상이 인간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은 명상을 한낱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명상은 바로 살고있는 이곳에서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며 일생을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어떤 나라이건 부정과 착취가 있고 전쟁의 위험을 당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고통의 근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우리가 조금씩 절약하면 이 지구의 에너지와 식량을 충분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도 우리의 탐욕, 편견, 증오가 동체대비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조국 가족 종교만을 사랑할 뿐 다른 종교 · 인종 · 전통을 거부한다. 수세기 동안 지속된 개혁과 발명으로 사회와 물질은 개선되었지만 우리의 탐욕, 집착, 증오, 무지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치유)하지 못해 고통이 여전히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열고 일상을 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이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우리도 결국 갑절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51

불교와 수학

46

함수와 불교

김 용 운

인간은 시간마다 자리 정하는 함수

'마음의 세계' 대오경지로 비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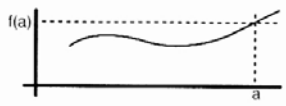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에 관한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자 드디어 19세 때 아내와 자식을 두고 출가하였다. 금욕과 고행의 수행을 거듭한 마지막 단계에서 그는 그런 고행만으로는 어떤 성과도 없음을 깨닫고 존재의 본질을 따지기 위해 조용히 사색을 했다. 드디어 성도(成道)의 날이 왔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연기의 법(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에 도달했다. 이 일반적 표현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의 밑뿌리에 있는 법칙으로 삼은 것이다. 그 내용은 모든 것은 다음 세가지의 법칙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1. 모든 것은 인과관계에 있다.
2.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원인이 될 '연'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원인이 된다.
3. 날날이의 존재 양식은 연으로써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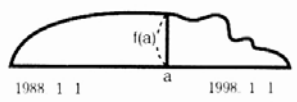
그러나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다. 자연 법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지를 발휘하는 자유를 갖는다. 따라서 인간은 '미래를 향해 스스로의 의지로 연이 정해지는 가능성을 갖는다.'

함수란 하나의 수(점)가 주어질 때 반드시 하나의 값이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5x=x^2$이라는 함수에서 $x=1$일 때 $f(1)=1$이며, $x=2$일 때 $f(2)=4$이다. 좀 더 쉬운 보기를 든다면 전화번호부에 있는 각각의 번호에는 꼭 하나의 전화통이 정해져 있는 상황과도 같다. 가령 '02-3473-1769'에는 서울 시내의 여러 전화 가운데 꼭 하나의 전화가 있고 그 번호로 걸어야만 반드시 그 전화기의 벨이 울린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한 점 a에 대해서 f(a)가 한 개만 대응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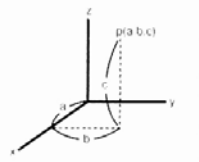
이때 점이 달라질 때마다 f(a)가 결정된다. 이 사실을 1988년 1월 1일에 태어나서 1998년 1월 1일에 죽은 사람의 생애에 빗대어 말하면 다음과 같다.



1988년 1월 1일에서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있는 어느 시간 a를 잡아도 그 사람이 있는 자리 f(a)는 정해져 있다.

인간은 지구상의 어느 입체적인 한 점에 있다. 이 같은 입체적인 점에 있어도 시간이 다르면 그 자리도 다르다. 이것을 두고 수학자는 '인간은 공간인 3차원과 시간의 차원을 합해서 형성되는 4차원의 연속체의 한 점을 맞이한다'고 한다. 3차원의 공간적인 위치와 시간은 연속적이다. 어느 인간도 마치 튜브처럼 생긴 시간, 공간을 합한 4차원의 연속체 속을 누비고 있다는 뜻이다. 시간은 순간마다 흐르는 것이기에 단 한번도 같은 점을 지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이 지구상의 인간은 누구나가 물리적인 뜻에서 한 순간도 고정점을 갖지 못하여 시간과 더불어 흘러 가는 것이다. 물리적으로도 諸行無常, 諸法無我인 것이다. 또 함수는 점이자, 점은 함수이다. 가령 3차공간상의 한 점 $P=(a,b,c)$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렇기에 점은 함수이며 또 이 수법을 써서 함수는 점임을 말할 수 있다. 순간마다 값이 정해지는 함수는 엄청나게 큰 차원을 갖는 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결국 인간은 시간마다 자리를 정하는 함수이며 그것은 흐르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의 점이다. 인간은 점일 수도 있고 함수도 될 수 있다.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시간과 더불어 위치를 정하는 함수와도 같은 처지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위지에 의한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것이 곧 불교적인 구원의 길이다.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공간, 시간의 4차원 이외에 마음의 세계가 있다. 물리적으로는 정해져 있다 해도 마음의 세계에서는 자유로이 대오(大悟)의 경지까지 비약할 수 있다. 한 찰나마다 변해가는 인간은 그 물리적인 4차원의 제한된 세계 속에서 축생도(畜生道)에 타락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성도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무한의 가능성을 지닌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 來 健 康 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